

호매칼럼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동무들이 모여라. 봄맞이 가자. 노래가 생각나는 봄날이다. 친구들과 바꾸니 들고 나물 캐던 모습이 생각나는 봄날은 어디를 가더라도 나물이 지천이다. 지금쯤이면 고사리, 치나물, 씩부쟁이, 방풍나물, 두릅, 가축나무 등 알기도 하지만 알 수도 없는 나물이 지천인 시기이다.

봄은 산과 들에서 솟아나는 새싹과 새순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먹거리도 즐겁게 한다. 봄바람이 불어 봄 소풍이라도 나시면 속에서 잠시, 머위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선다. 그리고 새순을 보면 캐고 따고 싶은 습성은 나물을 캐서 먹거리를 해결했던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윤구병 글/이태수 그림 ‘우리 손이 어디 가니’ 그림책 표지를 보면 할머니와 손녀, 손자가 쑥을 바꾸니에 가득 캐는 그림이 보인다. 쑥을 캐서 쑥버무리를 만들어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곳에 새장 들고

봄을 만나러 가는 순이는 봄의 소리에 길을 멈춘다. 봄에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로 소리로 봄이 온다..

봄나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옛 그림이 있다. 윤두서의 ‘나물 캐기’와 윤용의 ‘나물 캐는 여인’이다. 윤두서의 나물 캐기는 하늘에 제비가 날고 두 아낙은 나물을 캔다.

두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썼으며 망태기를 들고 있는 여인은 노비고, 한 명은 사대부 여인이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탈진 길에는 나물이 보이지 않는지 두 여인은 나물을 이리저리 찾는다.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이라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 땅을 뒤로 제쳐서라도 나물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봄이 되면 작년에 수확한 곡식은 다 떨어져 나물은 생명을 이어주는 먹거리다. 그러므로 양반과 노비를 가릴 것 없이 바꾸니를 들고 들만으로 나와 나물을 뜯어 생계를 이어나

‘나물 캐는 여인’

다. 그림에서 보는 비탈진 언덕은 척박하다. 겉음은 앞으로 나아 갔지만, 한 번 더 고개를 쑥 빼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 그 시절의 삶을 윤두서의 그림으로 엿볼 수 있다.

윤용의 ‘나물 캐는 여인’은 같은 윤두서 할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손자가 그림 그림인 듯하다.

옷이나 차림새를 보니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호미에 망태를 든 여인은 뒷모습을 보여준다. 봄날에 나물 캐기 위해 나선 여인의 모습은 현장감이 살아있다.

나물 캐는 여인은 누구보다 삶에 도전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 여성은 순종적인 면만 생각하지만, 삶 앞에 당당한 여성이다. 머리에 쓴 두건과 견어 올린 치마를 보면 삶을 치열한 여인은 질신을 신고 망태와 호미를 들고 당당히 서 있다.

이 그림 속에서 조선 시대 삶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의 모습

을 발견할 수 있다.

조정옥 미술평론가는 ‘나물 캐는 여인’의 그림을 보고 요즘도 그림 속 그녀처럼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 호미를 들고 달래와 냉이를 캐는 대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며 일한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이다.

날마다 출근하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화장하지 않은 얼굴도 예쁘다. 무채색 옷을 입고 붉은 장판지를 드러내도 아름다운 ‘나물 캐는 여인’처럼 일에 당당한 사람은 맨얼굴도 예쁘다. 아니 뒤통수도 예쁘다.

그러니 자신 있게 꾸벅꾸벅 걸어나가기를.’ 글을 읽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해 본다.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여성의 발걸음을 응원해 본다.

봄바람이 불어 봄나들이를 나섰다. 진안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는 데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

는 보따리를 든 여인은 발견했다. 봄나들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삶을 위해 나물을 뜯어 자녀의 학비를 벌고 생계를 위해 봄나물을 캐는 여인도 있다.

또한, 지역의 마을 공동체는 떡과 나물을 특화사업으로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마을 공동체도 늘어나고 있다. 마을 공동체 아낙들은 쑥이 제철인 시기에 쑥을 뜯어 떡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따리 들고 산과 들로 도시락 들고 봄나들이 간다.

봄이 온산을 덮어 버려 봄을 찾아진안으로 떠났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름다운 강산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산과 강 사잇길을 걷는다.

깊은 산골에도 쑥이 지천이라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요즘 쑥은 약쑥이라 쑥을 팔려 겨울에 인절미를 해 먹는다. 지천에 늘려 있는 쑥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계절, 봄날이 간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생명력이 솟는다 ‘견생조각전’

곡성군과 크라운해태가 함께...곡성천 일원에서 개최

6월 10일까지 유명 조각가 작품 20여점 선봬

곡성군과 크라운해태가 오는 6월 10일까지 곡성을 뚝방마켓 곡성천 일원에서 견생(見生) 조각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견생(見生) 조각전은 지난 2017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작품을 본 관객이 ‘조각을 보니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을 계기로 ‘보면 생기가 생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야외 대형 조각 전시다.

이번 참여 작가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명 조각가 김성수, 김숙빈, 김원근, 김태민, 류종원, 문민, 박민섭, 박정용, 심은석, 오세문, 윤선종, 이웅태, 이일, 이창희, 장원모, 전백진, 전신덕, 정찬우, 정춘일, 조유나 작가로 다양한 주제와 재질의 개성 넘치는 작품 20

점을 선보인다.

곡성천 일대는 자연의 경관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져 야외 조각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특히 조각전이 열리는 기간 중 매주 토요일 곡성천에서 열리는 ‘뚝방마켓’과 5월 16일(금) 시작되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견생조각전과 함께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용(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조각가는 “매년 곡성 견생조각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작품을 감상하



시는 분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호평을 듣고 있어 작가로서 뿌듯한 마음이다. 꽃이 만발한 따스한 봄날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문화곡성의 향기에 취하길 바란다”라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곡성=홍경백 기자

황금박쥐상 작가 변건호, 아티스트 토크

내일 함평군립미술관에서 만남의 자리

함평군이 황금박쥐상 조형물의 제작자인 변건호 작가를 초청해 생명과 예술을 주제로 한 특별한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한다.

함평군은 변건호 작가와의 아티스트 토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에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아티스트 토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연계 전시 변건호 작가의 ‘생명과 예술’ 기획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황금박쥐상 제작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작가의 예술

철학, 창작 세계를 폭넓게 조명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1948년생인 변건호 작가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사진과 평면 회화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선보이며 예술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

특히 함평의 상징물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황금박쥐상’의 제작자이기도 한 변 작가는 이번 토크에서 작품에 담긴 생명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군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함평=지대만 기자

‘장도장,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24~26일 ‘국가무형유산 장도장 보유자’ 박종균, 공개행사

국가무형유산 장도장보유자 박종균이 ‘장도장,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이라는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공개 실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

산진흥원이 후원하고, 장도장보유자 박종균이 주관하며, 광양장도전수교육관(광양장도박물관)에서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장도전수교육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장도전수교육관은 3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광양 장도의 깊은 역사와 섬세한 공예미를 간직한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장도를 전시하는 관람 공간과 장도 제작 과정을 직접 선보이며 살아 있는 기술을 전하는 공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개행사는 전통 공예인 장도에 대한 대중의 이

해를 넓히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 기술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장도 제작의 전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개행사 기간에는 장도 공방을 일반에 개방하고,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장도 제작 실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양=조순희 기자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 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체디벨로라	(031)466-100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견견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il@naver.com

지 국 안 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능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894
두 암.....266-1920
천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 사 안 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레...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